

평화당발 정계개편 시작됐다

의원총회 토론 이견 못 좁혀 비당권파 제3지대 신당 선언 의원 10명 '대안정치' 결성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장정숙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출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사실상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는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다. 일단 반당권파는 대안정치로 통해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위한 터잡기를 하면서, 당내 인사 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추가로 합류하면 창당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안정치 결성 참여자로는 김중화·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전정배·최경환(이상 가나다 순)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2명까지 포함한 전체 평화당 구성원 16명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반당권파는 당내에서 2~3명은 이상은 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옛 국민의당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박주선·김동철·주승용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을 1차적 합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3지대와 중도를 강조하면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에서도 합류할 인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당권파는 과거 안철수 전 의원을 앞세

워 국민의당을 창당,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새로운 인물 영입에 승부를 건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의원 등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대안정치에 외부인사를 데려와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 공천권 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등 파격 코드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반당권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들이 이른 9월 창당의 깃발을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사건임을 전제로 하고 "10명의 의견이 다르지만, 가급적 신당이 오는 9월 말에는 출범했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정국회가 마감되는 연말에 2차 의원총회에 나서고, 총선을 두 달 정도 앞둔 내년 2월에 신당을 최종 업그레이드 시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신당 창당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동영 대표 등 당내 당권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결국 분당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피로감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 신당 창당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열린 평화당 최고위에서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반당권파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당이 '사분

오열' 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박지원 대표 등을 겨냥 "분열을 선동한다"는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조배숙 전 대표는 "이미 정 대표가 (제3지대 모색을 위한 당내 기구인) 대변화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안정치의 목적도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검토 없이 새로운 결사체를 만든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역시 당권파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제3신당 구상을 너무 일찍, 노골적으로 터뜨려 오히려 제3지대 구축이 물건너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 17개 사업 선정

전남도가 올 하반기 '문화가 있는 날'에 펼쳐질 전남지역 15개 시·군의 17개 사업을 선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쉽게 접하고 누리도록 '매달 마지막 주간' 다양한 문화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으로, 전남도는 이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공모한 결과, 목포·순천·나주·광양 등 4개 시와 11개 군이 신청한 17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준국장·부단체장 15명 인사

전남도 안병욱 대변인이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고 윤진호 정책기획관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전남도는 17일 조직개편과 공로연수 실시 등에 따른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15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사에는 안 대변인과 윤 정책기획관 외에 최성진 도립도서관장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는 등 모두 3명이 포함됐다. 김신남 일자리정책본부장이 목포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영원 관광문화체육국장도 광양 부시장으로 발령됐다. 대신, 외국으로 교육(파견)을 갔던 배택후 부이사관이 일자리정책본부장으로 보임됐다.

준국장급인 심인 대변인으로 최병만 문화예술과장이 옮겨왔고 정책기획관은 김기홍 고흥부군수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은 한동희 장흥부군수가 각각 맡게됐다. 김영권 장성부군수는 도립도서관장으로, 의회 사무처 황인섭 총무담당관은 광양만권자유구역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단체장 전철로 장흥부군수에 김정완 일자리정책과장이 발령됐고 구례부군수에는 이두성 사회재난과장이, 고흥부군수에는 정상동 해운항만과장, 장성부군수에는 김중기 농업정책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는 7월 말까지 서기관·5급 이하 인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국장급 4명 프로필

안병욱 보건복지국장

기업도시담당관, 강진부군수를 거쳐 대변인 등을 지내며 끈기있게 일을 추진해나간다는 평. ▲광주(59) ▲대변인 ▲강진부군수



최성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다년간의 중앙 행정기관 근무에 따른 경험이 풍부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듣는다. ▲안도(59) ▲도립도서관 ▲해남부군수



윤진호 관광문화체육국장

강한 추진력과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에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움. ▲강진(48) ▲정책기획관 ▲지역경제과장



배택후 일자리정책본부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투자정책·경제과학·해양수산 등 전남도의 주요 업무부서를 두루 거쳤다. ▲순천(50) ▲해양수산국장 ▲경제과학국장



'5·18이 머시여?' ...광주시 수영대회 기간 5·18 홍보 핸드북 발간 배부



10가지 진실 담아 3000부 제작 기념관 등 외국인 방문도 늘어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내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5·18이 머시여?'라는 책자(사진)를 발간, 배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10일간의 기록, 10가지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자는 손바닥 크기의 핸드북 형태로 3000부 제작됐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의의, 10가지 핵심 이야기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책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5·18 민주유공자 공무원 취업 특혜설 등 극우보수세력이 양산,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짚어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책에는 녹두서점 옛터·전남대 정문·금남로·옛전남도청 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도도 첨부됐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망언 이후 5·18 관련 영상 제작, 카드 뉴스 제작, 온라인 전문 플랫폼 구축 등 5·18 진실 알리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계수영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주목하며 관련 시설을 찾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민주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기념관 등에는 수영 선수와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등 외국인 방문객 1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계엄군이 몰려난 이후 10일간의 자치공동체 기간 단 한 건의 약탈이나 방화, 강절도 등의 강력사건이 없었고, 계엄군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시신 수습과 현열에 나섰다"는 설명에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 심사위원인 파리드(프랑스) 씨는 광주시 측에 "광주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인지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광주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뜻깊은 도시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